

200자 안내

허무의 바다에 외로운 등불하나

한승원 지음

“소설책을 한 스무 권쯤 썼으리라”고 스스로 말하듯이, 「새터말 사람들」 「아제아제 바라아제」 등의 소설로 잘 알려진 작가의 수필집. 작가의 어린시절과 문학에 열병들었던 청년기 등 성장과정 이야기를 통해 작가의 문학관을 드러낸다. ‘개펄문학’이라 말하는 고향 정서가 뻗 소설을 쓰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작가에게 영향을 미친 부모와 문인들의 삶도 진지하게 엮고 있다.

고려원 / A5신 / 312면 / 5300원

無店鋪 뉴비지니스

후지다 히로노리 지음 / 배광석 옮김

‘무점포 판매’는 ‘다이렉트 마케팅’이라 불리기도 하며 통신판매·전화판매·홈파티판매·선전강습판매·데이터 베이스 마케팅 등이 포함되어 고가의 점포없이 약간의 자본과 아이디어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 이 책은 서두에서 무점포 판매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 방법으로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판매전략을 소개한다. 현재 무점포판매를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업체현황도 자세히 알려준다.

해돋이 / A5신 / 264면 / 6000원

형상시집

라이너 마리아 릴케 지음 / 김재혁 옮김

릴케의 중기작품이 주를 이루는 이 시집은 작가의 신비주의 사고와 고독을 형상화하고 있다. 릴케는 이 시집을 두권으로 나눈 뒤 각각 1, 2부로 구성했는데 “주여 때가 왔습니다”라는 구절로 잘 알려진 「가을날」을 비롯해 60여 편이 수록돼 있다. 시집의 제목인 ‘형상’은 릴케의 지적 직관이 순수한 명상의 상태가 아닌 무수한 개별적 움직임이란 것을 말해준다.

책세상 / A5신 / 236면 / 4500원

안개산 바람들 (상·하)

박혜강 지음

쌀개방과 우루과이라운드에 맞서 싸우는 농민들의 투쟁과정을 생생하게 그린 장편소설.

38 출판저널

농촌의 젊은이 영도는 공장노동자가 되어 임금투쟁과 노동자 권익투쟁을 하다가 좌절하고 그 방향을 건디고자 고향을 찾는다. 그러나 고향은 이미 피폐해졌고 쌀수입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정작 농민들은 마음만 급할뿐 시위할 엄두는 내지도 못하는데 영도는 농촌 친구 경만과 함께 반대시위를 한다. 쌀을 지키고자 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배어있는 작품이다.

시화사회사 / A5신 / 각 312, 304면 / 각 6000원

내가 가는 금강경

고은 지음

젊은 날 불교에 깊이 심취하여 뛰어난 수행을 이뤘던 작가가 육신을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강경의 은밀한 세계속에 들어가서 쓴 법문이야기. 작가는 기존의 금강경을 보는 눈의 진부함을 떨치고자 근대적인 시각을 도입한다. 또한 기존의 금강경의 난해함을 극복하여 보다 쉽게 접근하였으며, 참다운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 이상향을 제시한다.

불지사 / A5신 / 352면 / 5000원

발전과 환경위기

레드크리프트 지음 / 강현수 외 옮김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실효과, 열대우림의 감소, 생물의 멸종 등 심각한 환경위기를 구조적인 시각으로 보는 연구서. 기존의 정치경제학과 환경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 두가지 사조를 통합하고자 한다. 특히 문제의 진단 및 해결책 제시를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전개함으로써, 우리에게 환경위기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마련해 준다.

한울 / A5신 / 272면 / 7000원

신일본 패권주의와 한일관계

신용하 엮음

한일관계 특별위원회에서 한일관계와 일본 문화의 침투실태를 분석한 연구서. 엮음은 4편의 논문을 통해 일본의 대외 팽창정책을 살펴본 결과 “일본의 경제권 창설과 ‘신중기 방위력 정비사업’과 같은 군사대국화 정책은 아시아 및 한국이 경계해야 할 요소임”을 강조한다. 또한 한국내 일본 대중문화의 침투 실태를 조사, 팽창적 문화정책이 한국의 대중 예술과 이동, 청소년, 생활문화를 잠식하는 중에 야기되는 전반적인 문제를 우려한다.

김영사 / A5신 / 442면 / 8500원

엄마의 요술주머니

이영주 지음

‘안트리오’의 어머니이면서 수필가인 저자가 딸들을 키우면서 느낀 예술과 인생의 면면을 기록한 수필집. 저자는 자식들의 정서순화를

를 위해 음악을 가르치다가 천재성을 발견하게 되고 본격적인 교육을 위해 세 딸을 모두 줄리어드에 보낸다. 쌍둥이 자매 마리아와 루시아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던 날, 막내 안젤라까지 합세해 특별연주를 갖는 감격을 경험한다. 안트리오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까지 저자가 겪은 우여곡절의 사연과 딸들의 성장과정이 들어있다.

우석 / A5신 / 286면 / 5000원

중국의 철학적 기초

F.W.모트 지음 / 김용선 옮김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세계관을 밝히는 연구서. 저자는 “중국을 중국답게 만드는 것, 즉 중국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중국 특유의 우주론을 비롯, 전통 중국의 역사와 문명의 지적 토대를 분석한다. 사상의 내적구조나 내용분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명에서 유가와 도가사상이 차지하는 위치를 밝힌다. 또한 중국인의 세계관과 목자의 사상을 조명한다.

서광사 / A5신 / 192면 / 4500원

휴머니즘과 예술철학에 관한 성찰

토마스 에네스트 흄 지음 / 박상규 옮김

「명상록」으로 알려져 있는 이 책은 흄이 독일에 체류하던 당시 보링거를 만남으로써 골격화된 예술론이다. 이 책에서는 새시대의 미학관을 예견하고 동시에 해결되지 않은 현재와 미래를 ‘갯더미’란 은유를 빌어 아포리즘 형식으로 기술한다. 저자는 1920~30년대 이후 ‘이미지즘 시운동’을 시도하여 현대 주지주의 미학관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일련의 예술운동은 제1차대전 직전 런던의 지적 분위기와 맞아떨어져 급속도로 확산됐다.

미학사 / A5신 / 240면 / 6000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엘리트 일꾼

데이빗 휘어스비 외 지음 / 윤향연 옮김

저자는 머리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 일꾼은 누구인가”하는 문제와 함께 교회의 특정한 모임에서 교회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시킨다. 따라서 교회 모임에서 생기는 여러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 전반에 걸쳐 모세와 여호수아 등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헌신적인 신앙을 다루고 있다. 교회 사무원이나 직분자, 혹은 지도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지침서이다.

아가페출판사 / A5신 / 180면 / 3800원

北溪字義

陳淳 지음 / 김영민 옮김

주희의 제자인 진순이 주자학의 핵심을 ‘개

념’으로 해설한 철학서. 진순은 스승 주희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책에서는 성리학의 중심개념을 주희의 뜻에 가장 가깝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성리학의 관점에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를 궁극적 주제로 삼는다. 결론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도덕과 연관되며 도덕은 많은 수양 즉, ‘공부’와 통한다”고 말한다.

예문서원 / A5신 / 296면 / 6000원

소유문제와 자본주의 발전단계론

송태경 지음

소유문제를 마르크스의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연구서. 저자는 자유경쟁, 독점, 국가독점자본주의라는 자본주의 발전단계론이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체계로부터 일탈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상이한 발전단계를 ‘사적 소유’와 ‘주식회사’로 구분한다. 저자는 자본주의 생산을 연합된 노동의 생산으로, 주식회사적 소유를 실질적인 공동소유로 전환시키는 방법론을 문제삼는다.

자유인 / A5신 / 226면 / 5300원

어메이징 그라스

김유택 지음

작가의 데뷔작 「시창작 실습기」를 포함한 9편의 단편을 수록한 소설집. 「목부이야기」는 젓소농장을 하는 남자가 젓소의 주사약을 사러 나왔다가 광주사태를 만나는 내용이고 「시창작 실습기」와 「자메이카여 안녕」은 광주 체험의 뿌리를 직접 드러내지 않지만 그 사건에서 연유한 삶의 무로와 권태를 나타낸다. 「어메이징 그라스」 「먼 길」 「달도 밝다」의 작중 인물은 해직 기자나 전직 교사 등 현실과의 관련을 상실한 사람들의 삶이다. 이 소설집은 80년 광주의 아픈 상처를 겪고 이겨내는 한 섬약한 개인의 인고의 기록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문학과지성사 / A5신 / 232면 / 5000원

창간호

민족예술

[특별좌담] “90년대 예술상황과 진보적 문예운동의 전망”(도정일·조희연·심광현·이영미)

[논문] ▲ 루카치 전형론의 재평가(홍승용) ▲ 국악의 현대적 수용에 대한 몇가지 반성(진희숙) ▲ 내면화된 시간과 외재화되는 시간: 헤겔의 변증법과 푸코의 고고학(이정우)

[시] ▲ 늙은 투사의 노래 외 2편(신경림) ▲ 풀씨 외 2편(조태인) ▲ 산사문답 외 2편(도

종환) ▲ 먼지들은 쌓일 곳을 찾는다 외 2편
 (정종목) ▲ 悲歌를 위하여 외 2편(나희덕)
 [집중조명] '코리아통일미술전'에서 본 남북 미술의 성향(원동석)
 [창작소감] ▲ 판소리와 오페라의 "상봉"(문호근) ▲ 이중언어 연극의 체험(김석만)
 [제도·정책·대안] 90년대 올바른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한 연구(정희섭)
 [현장탐방] 영화제작의 현장, '기획시대'를 찾아서(천호영)
 [예술시평] ▲ 완성되지 못한 80년대의 청춘기-김영현의 「꽃사랑」(신승엽) ▲ 낮은 것과 새 것 사이에서(이영욱) ▲ 연주계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준 '민족음악' 축제(주성혜) ▲ 관객 만들기의 새로운 가능성(박영정) ▲ 93년, 우리들의 일그러진 얼굴(이효인)
 [대중문화읽기] ▲ 「용서받지 못한 자」(Un-forgiven)와 미국의 오늘(강영희) ▲ 집중 쿼즈테크(백지숙) ▲ 텔레비전과 신세대적 가치(강준만) ▲ 연예저널리즘의 오늘과 내일(양성희)
 [해외예술동향] ▲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소영) ▲ 「93 베를린-서울 음악제」를 보고(진희숙) ▲ 미국의 현대미술과 '칼아츠'(김형수) ▲ 경기 침체가 물고을 문화과동(김채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B5 / 236면 / 4500원

반년간지

공간과 사회 (93년 하반기)

[특집] ▲ 생태환경의 정치경제학 자본주의, 자연, 사회주의-이론적 서설(제임스 오코너) ▲ 정치경제학적 환경이론의 재구성(황태연) ▲ 기술경제패러다임의 변화와 환경문제(김환석) ▲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와 환경문제(최병두) ▲ 환경문제와 국가정책-성장, 환경 그리고 분배(이달곤)
 [논단] ▲ 사회·공간의 재구조화 ▲ 공간 재구성과 서민생활(제정구) ▲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 재구조화의 공간성(김덕현)
 [논문] ▲ 사회의 경제구조와 경관-서울과 평양의 도시경관 비교(이정재) ▲ 토지에서 나타나는 지대추구 연구(이영아)
 [현장보고] 계속되는 재개발문제와 그 해결방향(김수현)
 [쟁점] ▲ 아파트 분양가 자유화의 경제적 귀결(권오혁) ▲ 새로운 사회운동의 이해와 공간(김용창)
 한울 / A5신 / 278면 / 7000원

오늘의 시 (93년 하반기)

[특집 좌담] 문학 제도와 문학 ▲ 발제: 문학 제도에 대한 단상(정과리) ▲ 좌담(정과리·김훈·송호근·김영현·이광호)
 [오늘의 시인] ▲ 최승호 「고요한 한때」 외 5편 ▲ 시인론-뿔과 구멍, 그 악순환의 세계

(남진우) ▲ 황지우 「우울한 거울 1」 외 5편 ▲ 시인론-떠남과 되돌아옴, 또는 밖에서 헤매기(장경렬)
 [오늘의 시] 고희렬 외 서른 세 시인의 시 수록
 [하반기 총평] 혼돈에 구멍 뚫기(김혜순)
 [서평] ▲ 유하, 추억, 환멸의祭-유하 시집 「세상의 모든 저녁」(김지영) ▲ 아직은 오지 않은 아기-최승자 시집 「내 무덤, 푸르고」(김정란)
 [자료] 93년 하반기 발표 시 총목록
 현암사 / A5신 / 326면 / 5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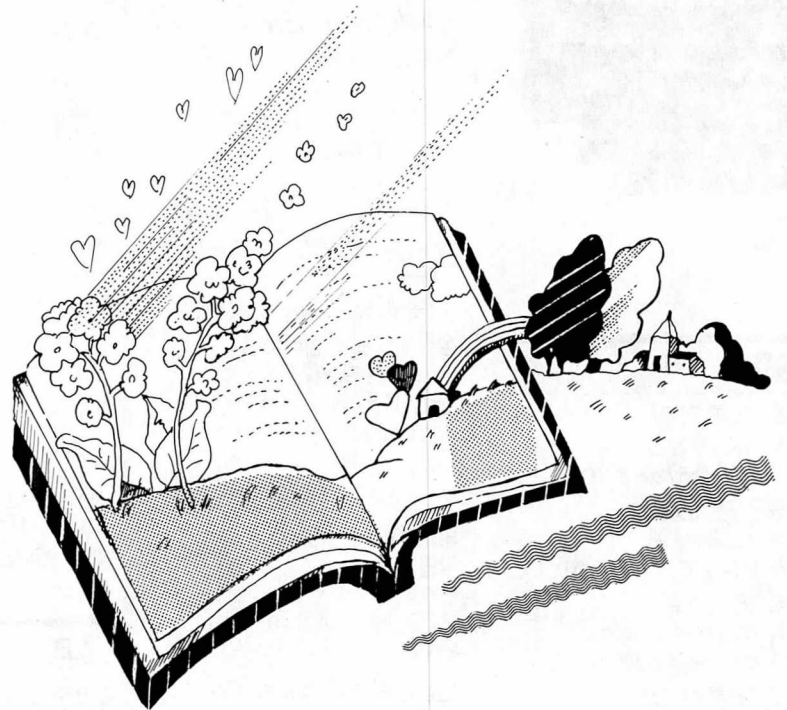
연간지

과학과 철학 (제4집)

[특집] 프랑스 철학의 이해 ▲ 천재의 학문-데카르트의 학문방법론에 대한 소고(김상환) ▲ 정신주의적 실재론의 연원(최정식) ▲ 베르그손의 철학관(차건희)
 [논문] ▲ 현대기술문명에 대한 철학적 성찰(김용준) ▲ 문과·이과 구분의 임의성과 그 폐단(김영식) ▲ 오행의 수리과학적 모형(소광섭)
 [서평] 자연주의적 유신론(김영정)
 [연구동향] ▲ 최근 인식론의 동향(김혜순) ▲ 미국의 도시, 문명과 국가에 대한 연구(최몽룡)
 통나무 / A5신 / 148면 / 4500원

민족문화 (제16집)

[논문] 동학사·동학서원의 「東學釋義 試考」(한우근) ▲ 寓言의 전통과 조선전기 夢遊記(윤주필) ▲ 「신도팔경」의 서경시적 특성(전수연) ▲ 「石川集」의 판본(박은숙) ▲ 정조의 唐宋八家文 批平 小考-문체만정과 관련하여(이의강) ▲ 「지네가시」설화의 전승과 그 의미(김정석) ▲ 18, 9세기 文·武·蔭官品制-「輿地圖書」와 「靑雲譜」의 수령 출신 자료분석을 중심으로(박승표)
 [자료] 민족문화추진회 발제도서 안내
 민족문화추진회 / A5신 / 232면 / 비매품



옷이 날개이듯 책도 꾸밈이 중요합니다.

옷이 날개라고들 하지요.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까지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의 날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편집에 있습니다.
 빈틈없는 교정, 교열, 표지디자인, 레이아웃 등
 전체적인 짜임새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숨을 쉬는 책이 탄생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한솔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전문편집·제작대행사입니다.
 여러분이 맡긴 원고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맞는 옷을 원하시면
 한솔의 정성어린 제작진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한솔이 만든 책에는
 한솔만의 품격이 배어 있습니다.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흐르듯
 마음의 샘을 파는 작가들의 정신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판의 기회를 만드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4번지 옥빌딩 706호(세종문화회관 뒤) 대표전화 : 735-4997 팩스 : 722-3866